

2020 ISSUE REPORT

코로나19 수출기업 영향 조사(3분기)

2020.11

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

 Korea Eximbank
WE FINANCE GLOBAL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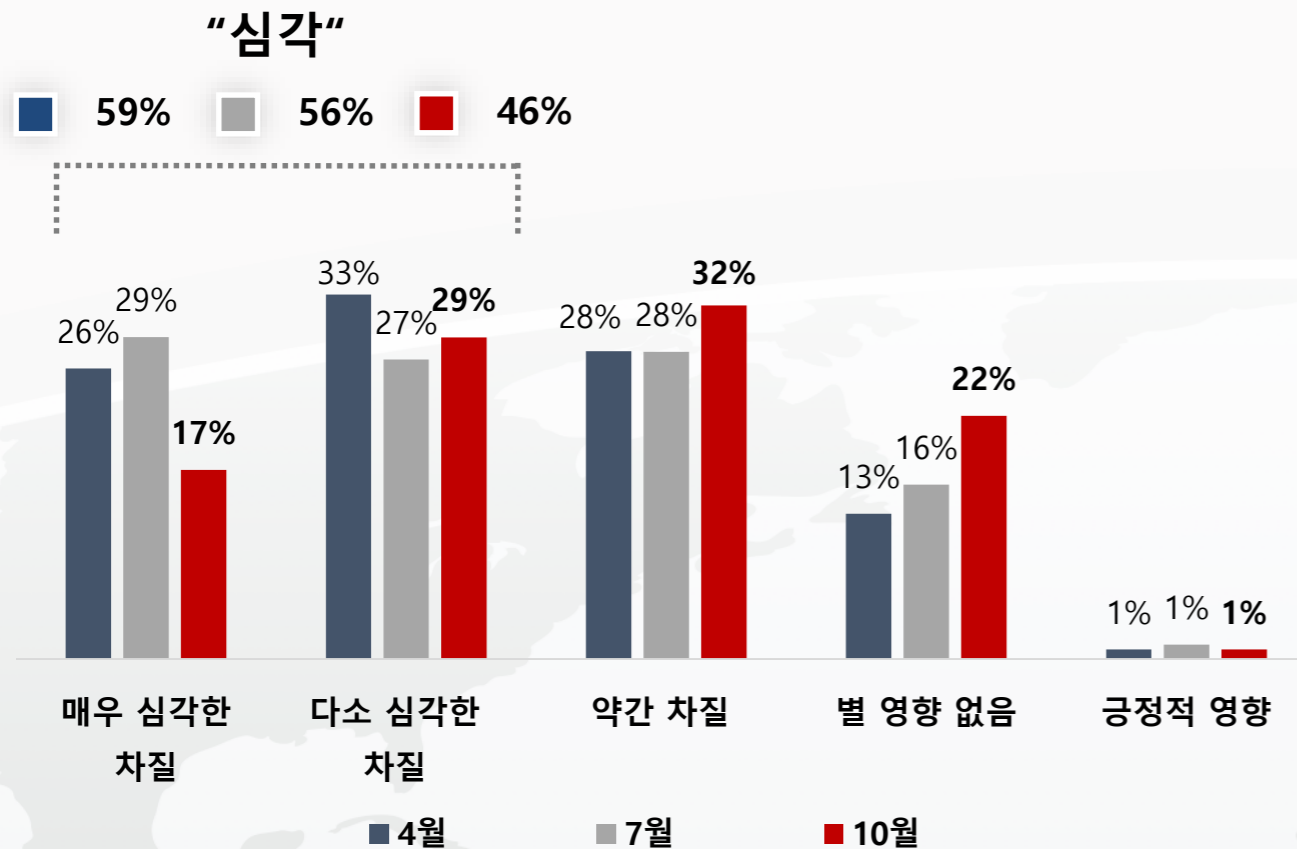
- 목적 : '코로나19 등의 수출 기업 영향' 관련 조사
- 설문 대상 : 수출 기업 455개社 (설문 대행 조사기관 (주)칸타코리아)
 - 기계류(135개社), 자동차(94개社), 전기전자(81개社) 등 총 13개 업종
- 설문 기간 : 2020. 10. 5 ~ 2020. 10. 8* (3차 조사)
 - * 1차 조사 : 2020.4.1 ~ 2020.4.10
 - 2차 조사 : 2020.7.6 ~ 2020.7.10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영향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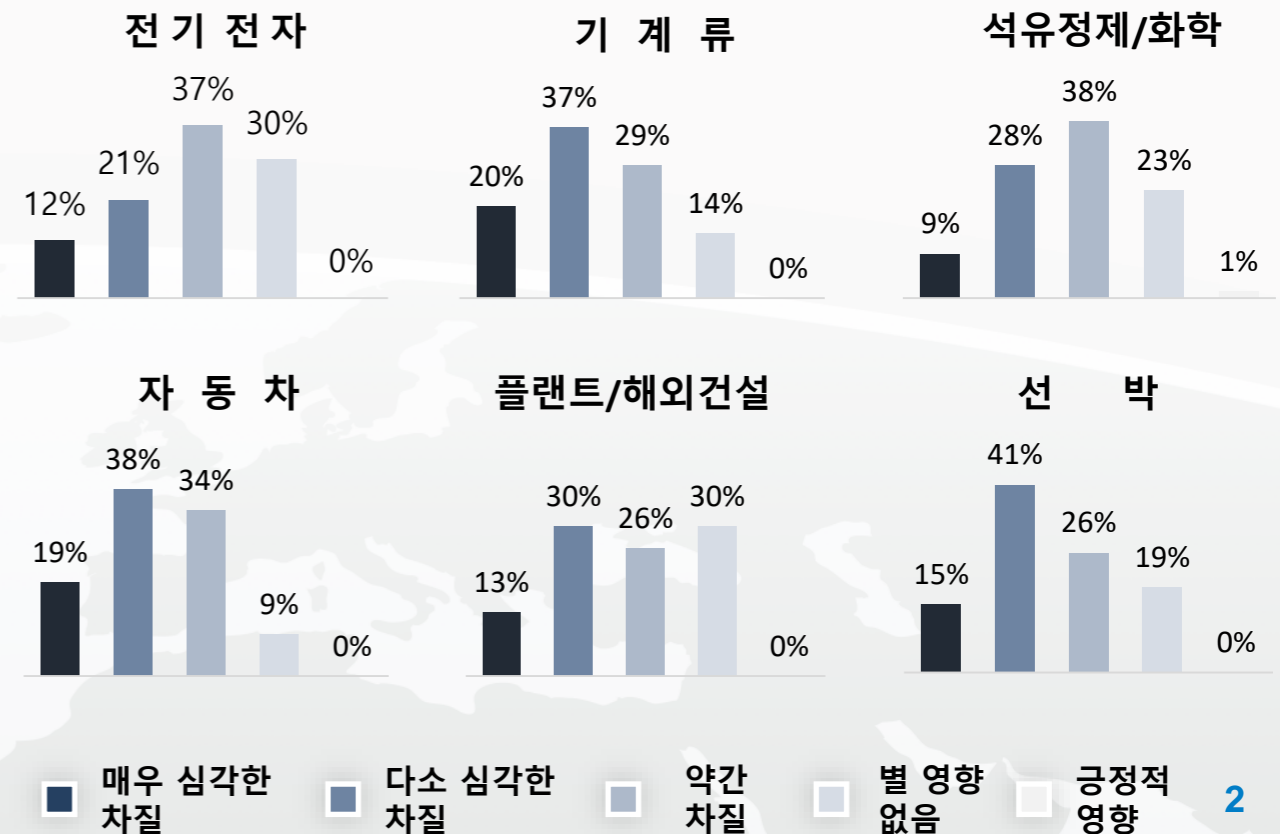
■ “심각한 차질” 감소, “약간 차질” · “영향 없음” 증가 등 수출 회복세

- 각국 경제 활동 재개로 “심각한 차질”(56%→46%) 응답률 10%p 하락, “약간 차질”(28%→32%), “별 영향 없음”(16%→22%) 은 증가해 수출 회복 체감 기업 확대
- 조사 시점 따라 최대 응답이 “다소 심각한 차질”(4월, 33%) → “매우 심각한 차질”(7월, 29%) → “약간 차질”(10월, 32%) 순으로 변화
- 전기전자(37%), 석유정제/화학(38%) “약간 차질” 비중 최대, “심각한 차질” 비중 감소, 하반기 이후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49%→19%), 기계류(40%→20%) 등은 “매우 심각한 차질” 비중 크게 감소

코로나19 수출 영향



코로나19 산업별 수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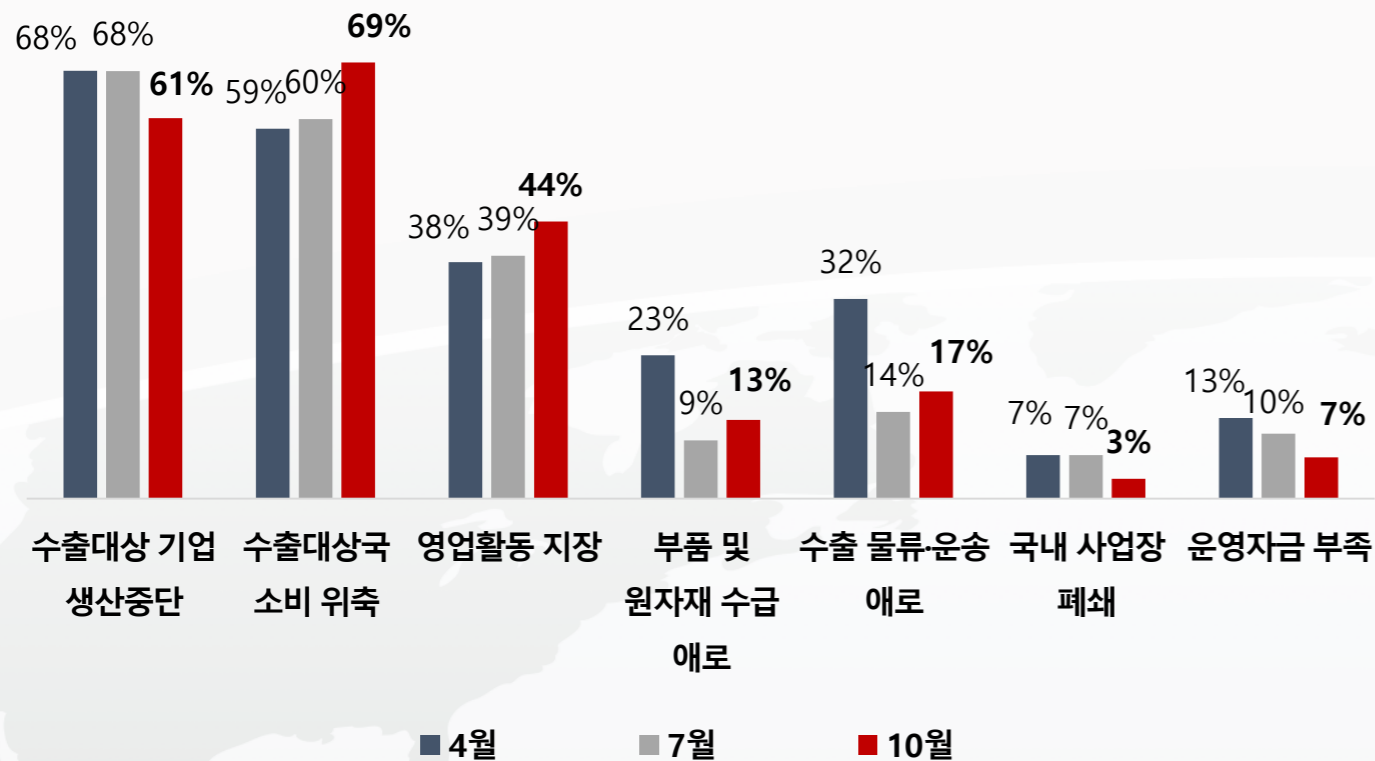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차질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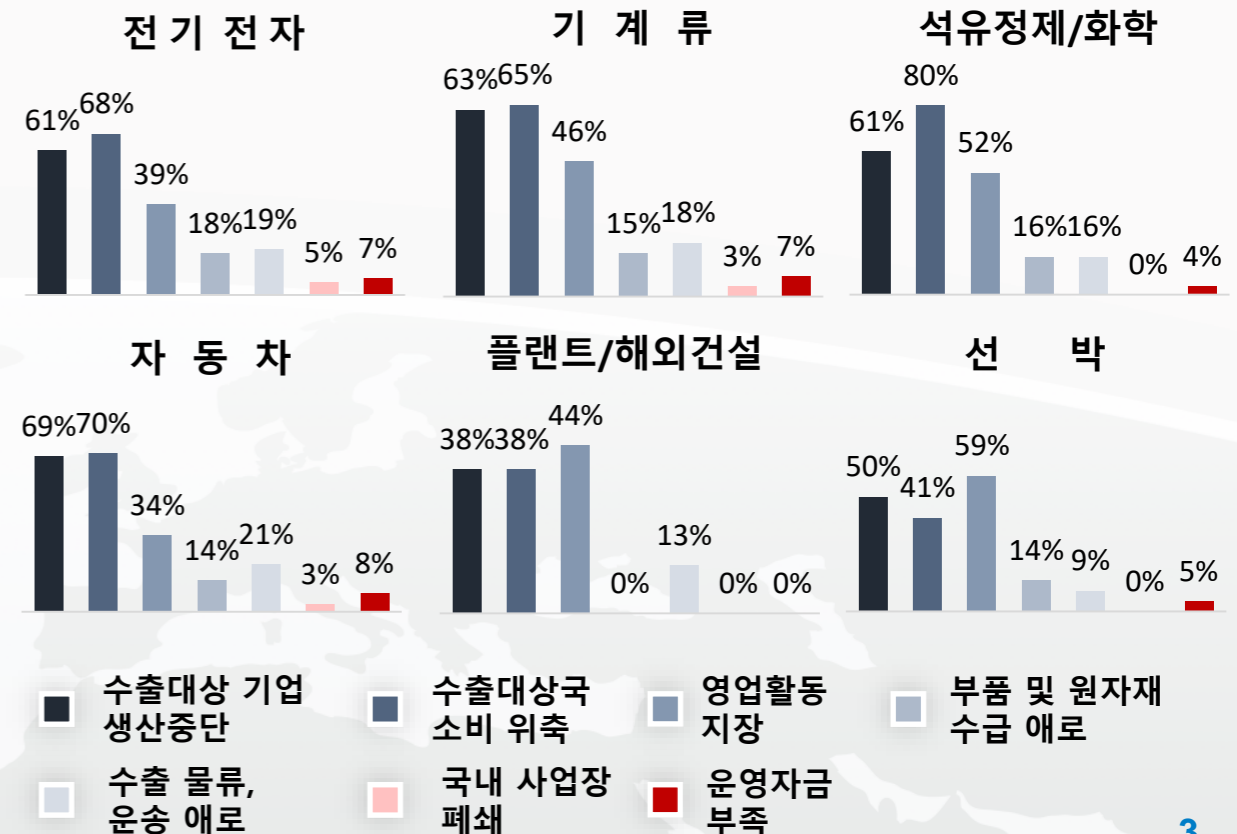
■ “수출대상 기업 생산중단(B2B 수출 ↓)” 감소, “수출대상국 소비위축(B2C 수출 ↓)” 증가

- “수출대상 기업 생산중단”(61%), “수출대상국 소비 위축”(69%) 응답 상위 지속, 비중은 변화
- 경제 활동 재개됐지만 정상 수준에는 못미쳐 “소비 위축”(60%→69%), “해외 전시회·바이어 접촉 취소 등 영업활동 지장”(39%→44%) 등 응답 비율 증가
- 생산망 회복 등으로 전기전자, 석유정제/화학, 자동차 등은 “수출대상국 소비 위축” 영향 확대, 출입국 제한 등으로 영업활동이 제한된 기계류, 선박 등에서는 “영업활동 지장” 비중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차질 원인 (복수 응답)



산업별 수출 차질 원인 (복수 응답)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액 감소 예상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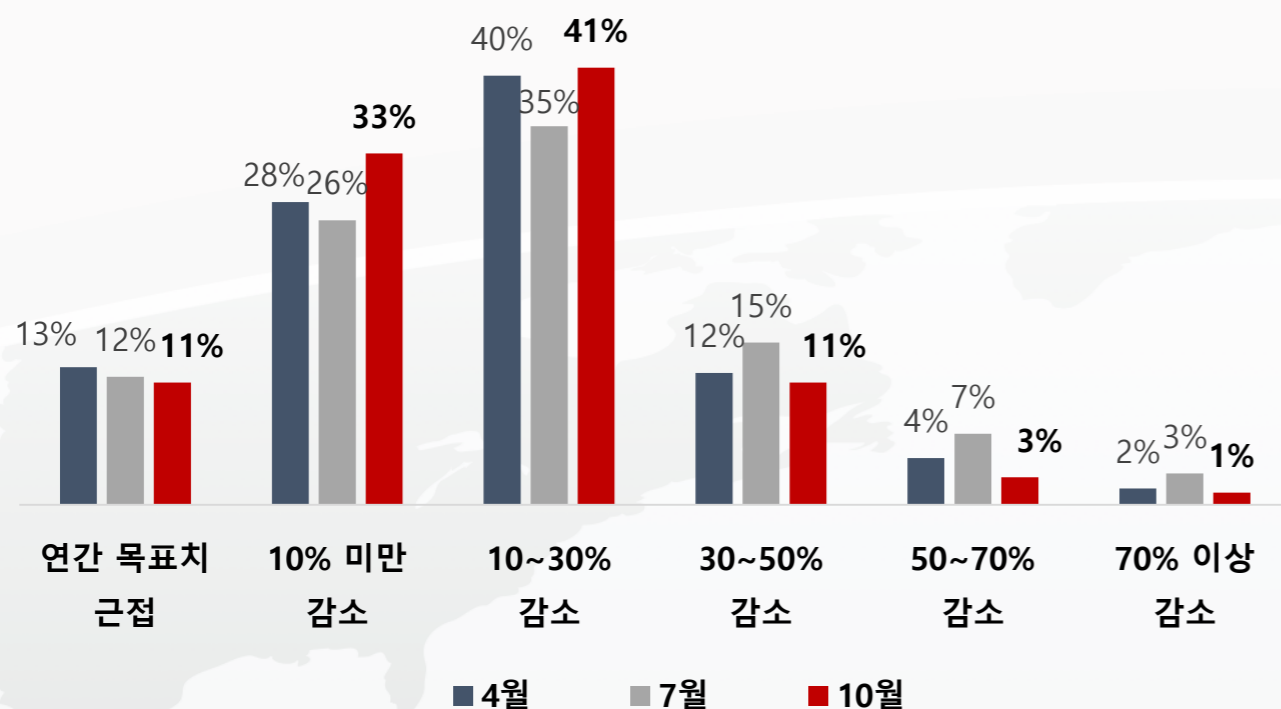
■ 수출기업, 연초 목표치 대비 연간 수출액 18% 감소 전망

- 과반(56%) 기업 “ 연초 목표 대비 10% 이상 감소 ” 응답, “30% 이상 감소”(25%→15%) 비율은 하락, 전산업 평균 예상 수출액 감소율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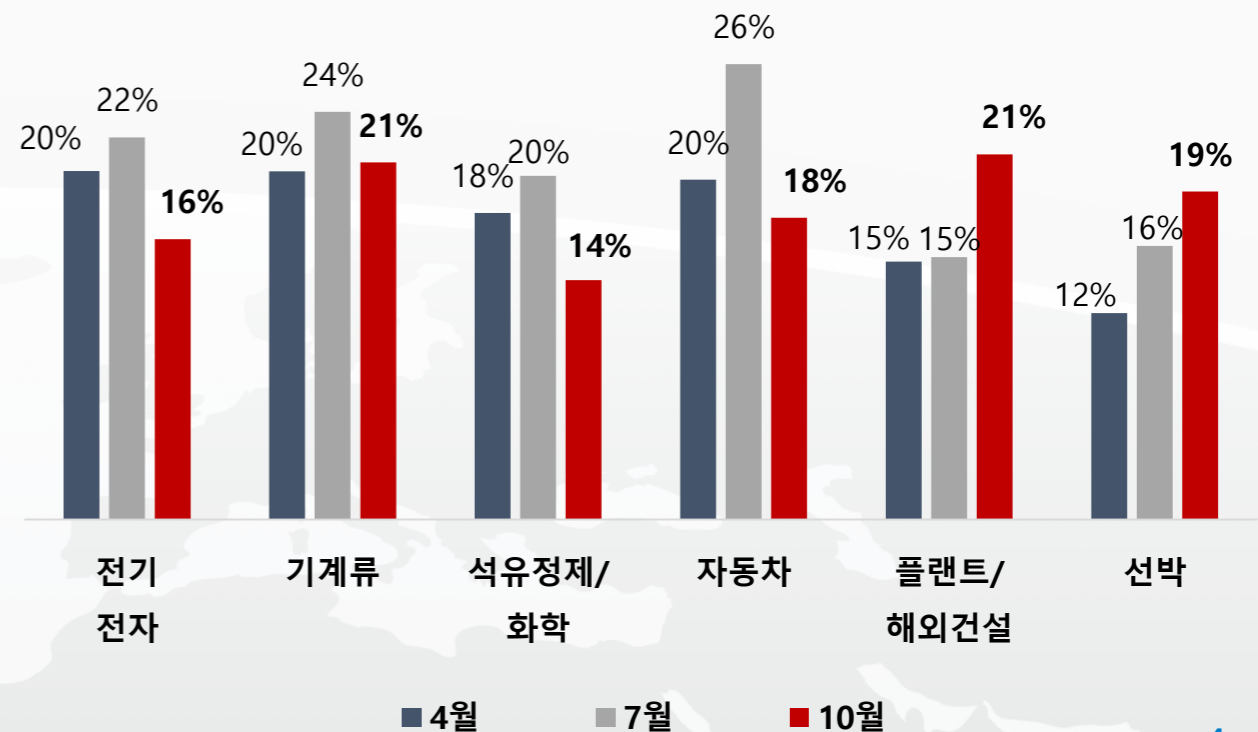
* 연초 목표 수출액 대비 감소폭 전망(전산업 평균, %) : (4월)△19 → (7월)△22 → (10월)△18

- 목표 수출액 대비 예상 감소폭은 플랜트/해외건설(△21%), 기계류(△21%), 선박(△19%) 순
- 전기전자(△22%→△16%), 석유정제/화학(△20%→△14%), 자동차(△26%→△18%) 등은 하반기 수출 회복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예상 감소폭 축소

연초 목표 대비 수출액 예상 감소율



산업별 연초 목표 대비 수출액 예상 감소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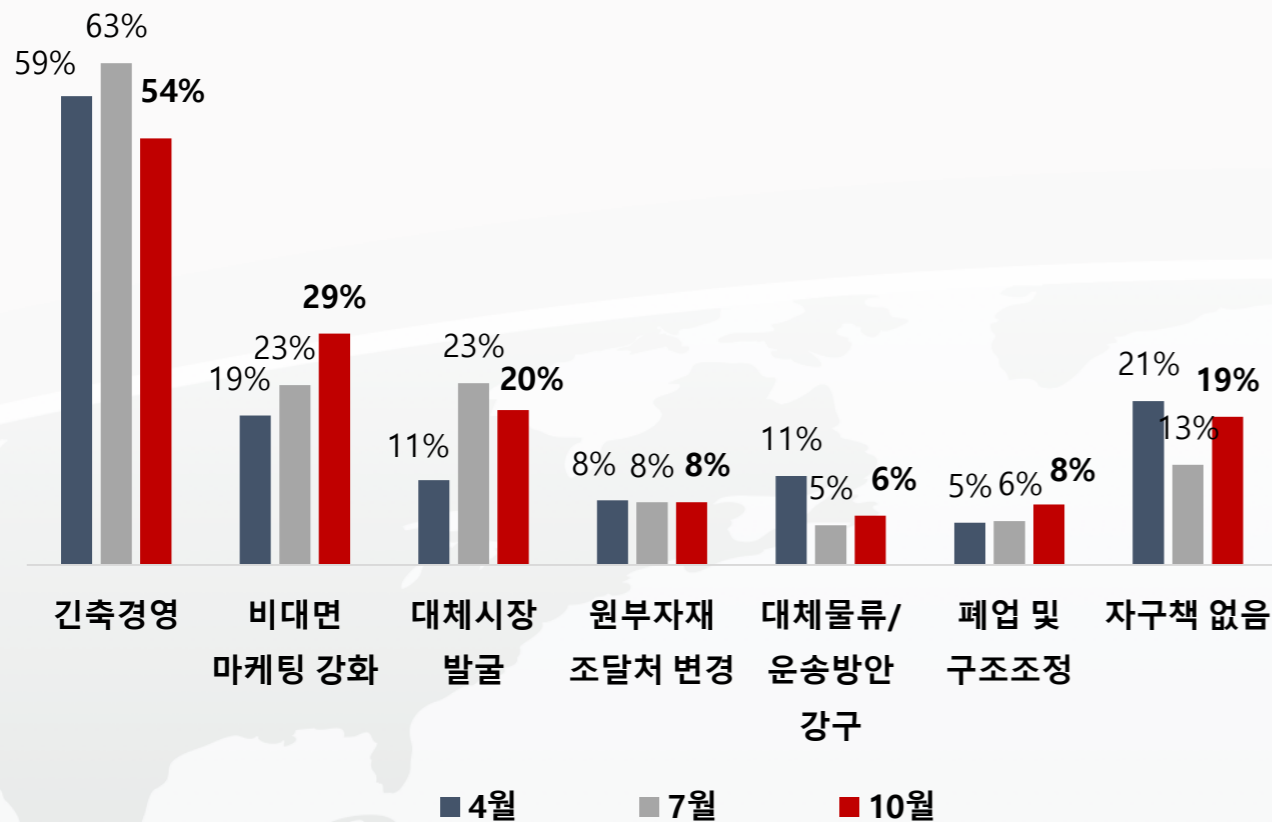
코로나19 피해 대응 자구책

■ “긴축 경영”(63%→54%) 감소, “비대면 마케팅”·“대체시장 발굴” 증가

- 지난 분기에 이어 “긴축경영” 비중 가장 높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응답률은 하락, “비대면 마케팅 강화”(29%), “대체시장 발굴”(20%) 등을 통한 활로 모색 증가
- 적절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한 기업(13%→19%)도 전기 대비 증가
- 일반 소비재 대비 기업간 영업 활동이 중요한 기계류(17%→30%), 석유정제/화학(22%→36%), 플랜트/해외건설(26%→38%), 선박(9% →32%) 등은 “비대면 마케팅” 비중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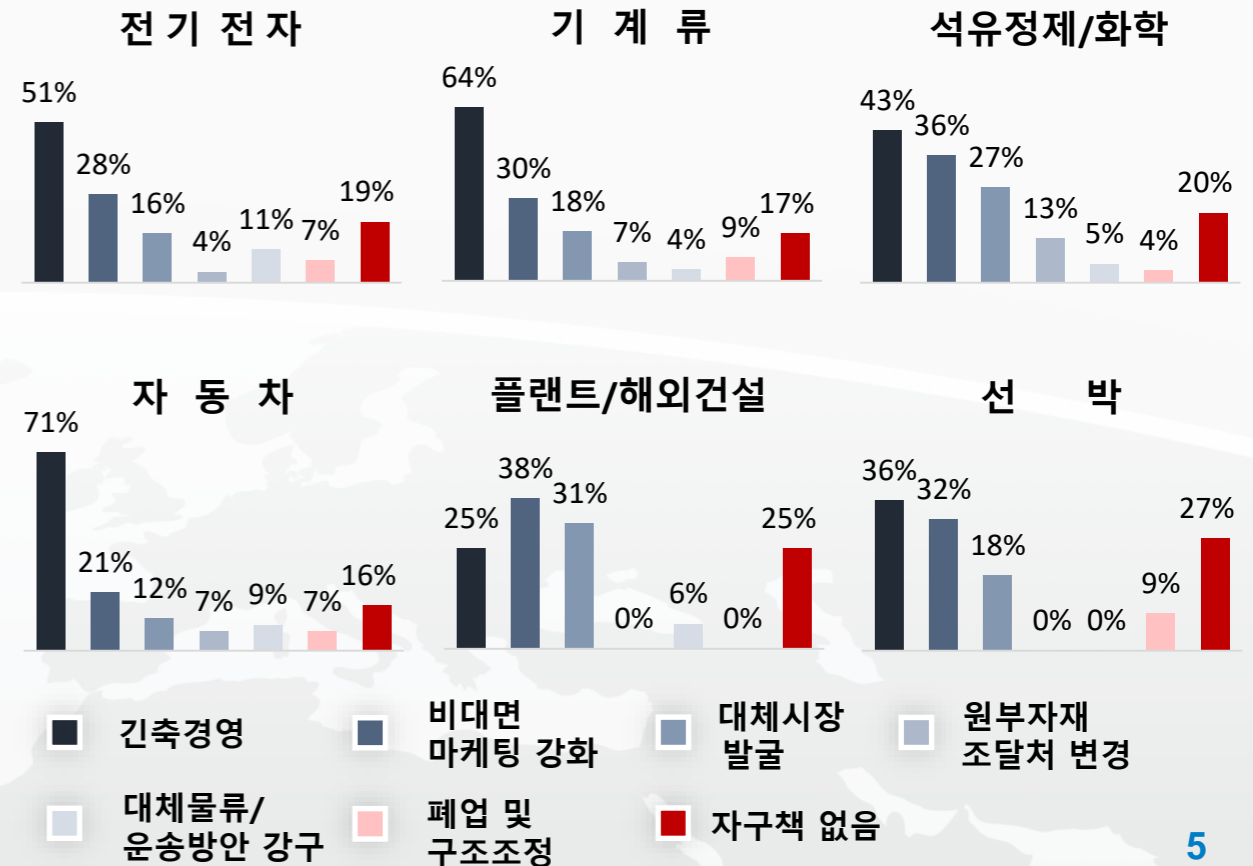
코로나19 피해 자구책

(복수 응답)



산업별 코로나19 피해 자구책

(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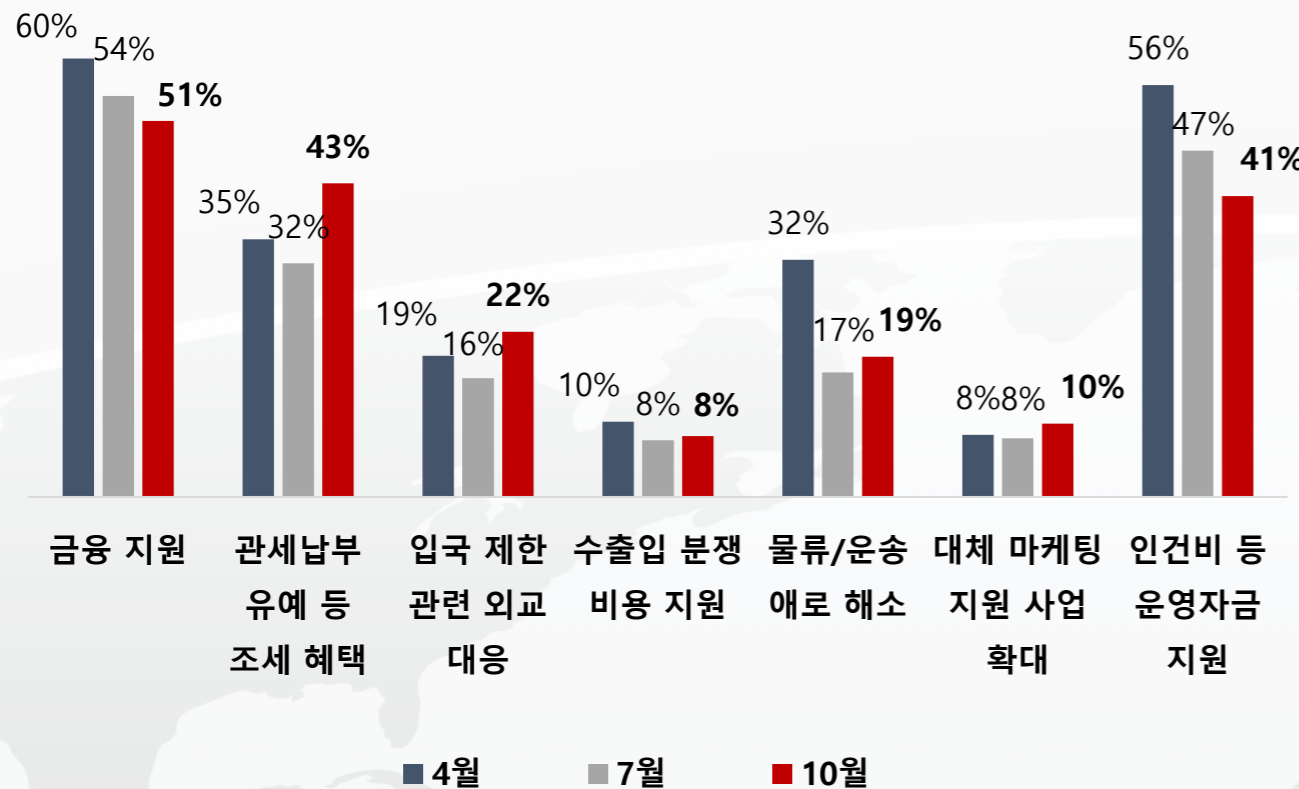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정책

■ “금융지원” · “관세 유예 등 조세 혜택” 가장 필요, “운영자금 지원” 비중은 감소

- “금융지원”(54%→51%), “운영자금 지원”(47%→41%) 등 단순 자금 관련 지원 정책 수요는 다소 감소, “관세 유예”(32%→43%), “입국제한 관련 외교 대응”(16%→22%) 등 영업 활동 지원책 응답 증가
- 부품 및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전기전자(39%→54%), 자동차(34%→52%), 석유정제/화학(38%→55%)는 “관세 납부 유예 등 조세 혜택” 응답 증가
- 기업간 영업 활동(B2B)이 중요한 전기전자(15%→25%), 기계류(15%→23%), 석유정제/화학(17%→27%) 에서는 “입국제한 관련 외교대응” 비중 증가

코로나19 관련 시급 정부 지원정책 (복수 응답)



산업별 정부 시급 지원정책 (복수 응답)

